

1.0. 이익률은 복리로 계산됨. 기하평균의 개념 및 특징.

예시1: 첫 해 9% 이익, 둘째 해 11% 이익이면, 첫해 10%, 둘째 해 10% 이익보다 이익이 적음.

예시2: 첫 해 10% 손해, 둘째 해 10% 이익, 또는 첫 해 10% 이익, 둘째 해 10% 손해 라면 결론적으로 원금 1% 손해. 10년간 10% 평균 이익 시 159% 이익

1.1. 월 적립식 투자 시 복리계산: 매월말 100만원 투자시

A) 연수익률15% 가정.

10년투자: 원금 1억2천, 복리수익: 1억5천5백, 합2억7천5백.

20년투자: 원금 2억4천, 복리수익: 12억5천7백, 합14억9천7백.

30년투자: 원금 3억6천, 복리수익: 65억6천3백, 합69억2천3백.

40년투자: 원금 4억8천, 복리수익: 305억4천, 합310억2천.

B) 연수익률10% 가정.

10년투자: 원금 1억2천, 복리수익: 8천4백, 합2억 5백.

20년투자: 원금 2억4천, 복리수익: 5억1천9백, 합7억5천9백.

30년투자: 원금 3억6천, 복리수익: 19억, 합22억6천.

40년투자: 원금 4억8천, 복리수익: 58억4천4백, 합63억2천4백.

1.2. 왜 투자가 필요한가?

워렌버핏: 재산의 90%이상 65세 이후 형성, 므두셀라 기법.

기대수명(2018년통계청생명표): 남 79.7세, 여 85.7세

100세=>현재 20세는 3명 중 1명, 30세는 4명 중 1명, 40세는 5명 중 1명, 50세는 7명 중 1명 정도 100세를 살 것 (인구통계, 박유성교수)

2. 장기 적립식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에 투자. 비전문가라면 개별주식보다 인덱스가 편하다. 개별주식은 장기전망 어려움.

2020년 top1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LG생명건강, 카카오, 현대자동차)

2000년 top10 (삼성전자, SK텔레콤, KT,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KT&G, 기아차, 현대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증권)

1990년 top 10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신한은행, 삼성전자, 대우)

20년전 미국 top 10 (MSFT, GE, Exxon, Walmart, citi, Intel, BP, Nokia등)

인덱스투자: S&P500, 나스닥100 등 인덱스 펀드나 ETF는 실적이 안 좋으면 퇴출당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편입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므로 구조적으로 장기 우상향. 그렇다면 KOSPI100은? => 한국인구구조 추이를 살펴봐야 함.

3. 한국인구통계) 통계청 자료 기반

A) 생산가능인구(15~64세): 2018년부터 감소. 2020년 3579만명. 2025년 3415만명.(-164만명,대전시 전체인구) 2030년 3223만명, 2040년 2703만명. (출산율 하락으로 유소년 인구 급감&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결과) **2020년부터 인구자연감소 시작.**

B) 출산통계: 1990년 65만, 2000년 63만, 2010년 47만, 2018년 33만, 2019년 30만, **2020년 27만(출산율 0.84)** (2020년 대입정원: 55만) 20년후 폐교 대학수 증가(저출산예산으로 2020년 37조 투입) 초·중·고등학교들도 마찬가지.

*고령화: 2026년 초고령사회 (65세이상20%이상) 돌입 예정

*연금: 사학, 군인, 공무원, 국민연금 등 (적자전환, 고갈의 순서를 맞이할 것)

*삼성전자 정도 30년후에도 지금과 같은 성장 지속?

현재 분위기는 뜨겁지만, 수 년, 10년, 20년후에는 국내주식 매도행렬이 이어질 수 있음.

2021년 국민연금: 자산배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6.8%, **해외주식 25.1%**, 국내채권 37.9%, 해외채권 7.0%, 대체자산 13.2%) **2025년 국내주식 15%축소.**

사학연금: 현재 국내주식18.6%. 2022년 17.5%, 2023년 16.4%, 2024년 15%, 2025년 14.5% 등으로 축소

공무원 연금: 현재 국내주식 18.5%. **2025년 국내주식 10%까지 내릴 계획.**

(이유: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

내뽕풀은 어떤가? 국내주식비율이??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는 국내주식 100% ok.

주식 없어도 ok. 이미 부동산으로 은퇴준비 어느 정도임/ 그러나 학생들은?)

4. 미국 인구) 고령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는 향후 40년 증가 예상. 기축통화, 에너지 거의 자급, 식량 자급률 거의 100%. 미국시총. 세계 시가총액의 약 40%, (2020년) 한국은 약 2~3%

4.1. 미국 인덱스ETF: (10년평균수익률spy: 12%, qqq:17%)

워렌 버핏 제안. (90%:10%). 미국인덱스에 장기간 월 적립식으로 투자.

5. 기타 사항.

5.1. 세금.

한국에 상장된 미국지수 추종 ETF: 15.4%(2천만원이상종부세)

미국주식: 250 미만 비과세/이상 22%, 부부 양도 시 10년간 6억 비과세. 양도가액이 매수가. 향후 매도 시 매도 시점 전후 60일 평균가로 매도가 결정.

2023년부터 5천만원까지 국내주식비과세 (대주주 아닐 경우, 단일종목 10억 이하, 지분 1%이하) 5천이상 3억이하 20%, 3억이상 25%.

5.2. 중소형주매매 포트폴리오5~10%이내. 안 해도 되나 못 버티면 매매

(공부하다가 발견 시, 왜 좋아 보이는가? 생각할 필요. 최근 많이 올라서? 매수 금지.

기본적 재무제표. 향후 섹터 전망. 대주주비율? 국민연금비율은? 외국인비율? 최근

급등여부. 대표의 비전? 또는 가격이 저렴? 보조지표활용. 분할매수- 변동성 헷지. // 경기 순환주? 테마주? 향후 유망주? 등은 관심 가져볼 만 하나 신경 쓰임. 전업 투자. 전문가. 주식 발굴 안목이 있어야 가능.) 변동성은 확률분포 꼬리가 두텁다.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음. 나심탈레브. 블랙스완.

5.3. 코인. 가상화폐 (시가총액 큰 것으로) 포트폴리오 5~10% 이내. 복리 효과 체험함(3년 5배)

코인은 2022년 1월부터 과세대상에 포함.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250 비과세 후 22%, 어떠한 다른 소득과도 합산X, 누진세X)

해외거래소 이용 시 과세불가. 올해 이전 필요. 해외거래소 5억이상 보유 시 국세청 신고 의무. 미신고시 최대 20%까지 과태료.

잠재력 있음, 30년 전 삼성전자 현재 가치의 1/300배. 지금 매수해도 되나? => 5%~10%이내를 분할매수. 공포심 생기면 매수 싸인.

5.4. 학생들 취업 후 주식투자 필수. 미리 떼어서 투자. 나머지는 자신을 위해서.

자본주의 특징) 폐해? 부익부빈익빈?

30년 일하는 과정은 반드시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금융문맹 no. (금수저만 ok, 세후 30억?)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신)자본주의. 왜 가르쳐 주지 않는가? 노예화(x)최신(o).

2000년/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코로나 이후는?

5.5. 마인드컨트롤 (단기급상승시 탐욕적 매수, 이후 조정, 단기급락시 공포로 매도, 이후 상승) 이성적 사고가 작동 못할 경우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의 확률 하락, 수익률 하락의 결과로 나타남.

조급한 만회심리는 추가손실로 이어짐. 마인드컨트롤은 책을 통한 공부와 훈련으로 가능. (교보문고 경제경영분야. 베스트셀러. 학교도서관대출.)

5.6. 재테크의 관점에서 보는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10년 더 살면 10년치 연금 추가. 복리의 혜택을 더 누림. 버핏이 65세사망했다면 현재 재산의 겨우 10%의 재산만 보유.)

5.7. 자본소득으로 이루는 노후대비

근로소득으로 노후대비는 평생 힘들게 일해야 함. 돈의 노예란 이런 것.

자본소득으로 노후대비는 삶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해줌.

(10% 이율, 30년, 월 50만원 투자 가정 시 11억. 월 복리 계산기 이용.)

YOLO의 삶이 가능.